

신행 · 포교 소식

지역포교 · 포교사단 어떻게 할 것인가

포교원, 4월 1일 국제회의장서 제61회 포교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제61회 포교 정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포교사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방향에 대한 열린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찬회는 운영회 포교원 차장이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역할'을, 전호균

서울지역단 교육위원이 '포교 활성화 위한 교구와 사찰의 역할'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사단의 미래 상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교원은 "이번 연찬회는 지역포교의 중요성을 제고하며 지역포교에서 포교사단의 역할, 포교사단과 지역 교구 간 사찰 간 관계를 정립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2)2011-1911 이나은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교육원 인증 연수교육

4월 17~18일 국제선센터서 '가슴경청과 수용' 주제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17~18일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너와 나, 관계를 소통시키는 지혜명상-가슴경청과 수용'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교의 '연기법'과 심리학의 '정신분석'을 접목한 이론과 실습 교육 △고통의 원인과 해법의

제시 △임상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된 다.

최훈동 정신과전문의가 강사로 나서며 불교지도자로서 스님과 일반인들이 불교와 명상에 기반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불교계 최초 사찰 국악합주단 오디션

3월 18일 봉은사서...8:1의 높은 경쟁률



봉은사 국악합주단 단원 선발 오디션에 참가한 지원자가 해금을 연주하고 있다.

불교계 최초로 사찰 소속 악단인 봉은사 국악합주단 단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이 봉은사 경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됐다.

불교계 최초라는 관심 속에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 1개 파트별 각 1명씩 총 10명을 채용하는 이번 오디션에는 총 77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오디션은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봉은사 포교국장 해찬 스님과 국악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심사했다.

봉은사는 "그동안 피아노가 중심이 되어 연주되었던 찬불가를 국악기로 연주함으로써 불교음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파라미타 활동으로 지덕체 · 내신 'UP'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학기 초 맞아 신입회원 모집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학기 초를 맞아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

파라미타는 "전국 초 · 중 · 고 및 사찰 등 500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라미타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6년에 출범한 파라미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이 · 걸스카우트와 같은 불교계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다.

전통사상과 문화를 계승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지향하는 파라미타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 △청소년 자기개발 활동 △청소년 심신성장 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협력활동 △연수 및 연구활동 등 5가지 중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서 5만 명의 학생들이 파라미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들 가운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파라미타를 대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협약해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파라미타는 전국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보고대회,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답사활동 및 지도교사 양성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수기 공모' 'UCC 공모'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대표 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한 파라미타는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 · 신장할 수 있는 전국창작등공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파라미타를 대표하는 활동이다. 파라미타 학생들이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파라미타 제공)

불교계 대표적 청소년 단체 전국 초중고 500여 곳 활동 문화재지킴이 · 국제교류 등 활발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입시 유리

모전, 백일장 대회, 사생대회, 만화공모전, 전국 청소년 합창제, 전국청소년음악놀이 축제, 청소년 문화한마당 등을 개최해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인 만큼 파라미타는 학생들의 심신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해 진행되는 전국연합캠프, 리더쉽캠프, 스키 캠프, 자연생태문화여행, 전통사찰탐방스

데이, 식생활개선사업, 각종 연회 수련회 등이 그 예다. 특히 파라미타 회장 정여 스님이 직접 개발한 '명상 선기공'을 학생들에게 보급해 학습능력 향상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있다.

파라미타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10여 년째 진행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활동이다. 파라미타는 일본 및 중국과 협약으로 홈스테이, 문화교류, 문화유적탐방 등 상호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등에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파라미타 측은 "한 · 일 교류협력활동은 파라미타 활동에 큰 성과다. 일본의 청소년 가운데는 내국에서 한국관광을 안내하는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스님으로 출가하는

등 참가 청소년들은 한 · 일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파라미타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거리로 연구 및 개발하는 청소년 문화 연구소를 운영해 지도교사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파라미타 활동은 최근 파라미타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 단체로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유리한 청소년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파라미타 활동기획장은 "파라미타를 비롯해 기독교청소년연회(CYA),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한국 YMCA전국연맹 등 21개 단체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 선정됐다"며 "아무래도 내신과 학교활동이 반영되는 입시전형에서 파라미타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면 동점대의 다른 학생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라미타는 매년 2회 학기초 신입회원을 접수하고 있다. 파라미타가 있는 해당 학교 및 사찰에 다니는 초 · 중 · 고등학생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활동 청소년 회원에게는 행사별로 우수회원 모범상, 자원봉사증, 체험활동증 등이 발급된다.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앞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파라미타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맥상통하며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상도선원, 제15기 마음수행학교 개설

4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8주 과정...중도 · 연기 삶에서 실천

서울 상도선원(선원장 미산 · 사진)은 '제15기 마음수행학교'를 4월 2일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마음수행학교는 8주 과정으로 구성돼 불교의 핵심사상인 연기 · 중도를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음수행학교는 초기경전을 근거로 연기와 중도에 대해 핵심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일상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앙승가대 교수인 미산 스님이 정리한 마음수행의 핵심원리를 일상에서 실천해 연기적 삶을 깨달아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수행학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의는 연기 · 중도 수행과 불교수행의 핵심원리, 연기법과 연기법, 일체법,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부처님의



생애,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 자애 미소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1일 명상캠프를 통해 배움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20만원이며, 부부 또는 대학생이 참여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도선원은 "마음수행학교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불교수행 기본교육과정"이라며 "연기와 중도의 삶, 그리고 마음수행의 원리를 알아 실천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02)815-3391 이나은 기자

"도심 속 전법 교육도량 만들 것"

대구 불광사, 명산 스님 주지 부임



불광사는 3월 12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회주 묘허 스님과 청도 정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산식을 거행했다.

1996년에 창건된 대구시 남구 대명동 불광사 새 주지로 명산 스님이 부임했다.

불광사는 3월 12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회주 묘허 스님과 청도 정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산식을 거행했다.

명산 스님은 "불광사가 도심 속 기도하는 전법 교육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명산 스님은 대구시 황금동에서 10여년 동안 야선원 선원장을 지내며, 관음입시기도와 지장기도 등 신도들의 수행정진을 이끈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의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목탁 치참)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 ① 송 주 권 (도량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 (삼보통정,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정, 각종 불공의식 등)
- ④ 제의식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법첩을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개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답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敎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영합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